

# 기억과 글쓰기의 정치성: 토니 모리슨의 『어둠 속의 유희』, 『빌러비드』, 『노벨상 수상 연설』, 『레시터티브』

김 미 현  
(아주대학교)

## 국문초록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은 애도의 글(work of mou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의 작품 전체에서 죽음과 상실은 주요한 주제이고 상실의 기억이 또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끌어 나가는 동인이다. 본 논문은 모리슨의 애도가 프로이트의 애도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고자 한다. 모리슨의 글과 같이 집단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풀어 나가는 글쓰기에서는 개인의 상실의 경험과 역사에서 잊혀지고 배제된 자에 대한 기억이 연결된다. 식민, 전쟁, 학살, 폭력, 억압의 경험과 그것을 겪은 집단의 기억의 문제를 작품에서 다루는 작가들에게 애도는 죽은 자, 잊혀진 자를 기억으로 살려내고 그 상실의 슬픔을 달래는 두 가지의 면을 포함한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충실한 기억을 목표로 한다면 주체는 기억과 그리움을 거둬들일 수 없고 프로이트의 우울증적 상태로도 상실의 대상을 보유할 수 없다.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프로이트의 우울뿐만 아니라 애도는 타자의 죽음, 타자와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함으로써 타자의 독립성, 타자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충실한 애도일 수 없다. 잊혀진 과거를 유령으로 살려 내는 『빌러비드』의 글쓰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정의를 중시하는 것이고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곧 애도가 끝이 날 수 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의 애도로서 글쓰기는 역사에서 잊혀진 죽음과 자기 안의 상실을 연결하는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현재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리슨은 『어둠 속의 유희』에서 흑인

성이 백인의 정체성, 자유, 공포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둠, 그림자, 대체물, 배경으로 사용됨을 지적하면서 백인의 인종적 우울증의 타자로 존재하는 흑인을 주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작가로서 자신의 일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소설에 백인의 공포와 욕망이 투사된 어둠의 존재로서 흑인이 아닌 과거에 억압된 주체의 유령을 그려낸다.

모리슨의 애도로서의 글쓰기는 또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눈으로 빌러비드를 보게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기억하고 현재와 다른 미래를 모색하는 자신의 노력에 동참하게 한다. 노벨상 연설에서 언어는 삶을 그대로 포착할 수 없고 노예제, 전쟁, 학살을 그대로 담아 낼 수 없지만 언어의 생명력은 자신과 독자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보는 모리슨의 입장은 애도에 대한 경의와 책임을 나누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서 빌러비드는 의미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리슨은 흑인임을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자신과 독자의 관계에서 본다. 데리다는 불가능이 새로운 것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미래에 올 것으로 보지만 모리슨은 작가로서 현재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변화와 그것을 통한 독자와의 공동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모리슨은 현재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인종의 차이를 유지하며 인종주의에 물들지 않은 언어의 개발이라고 하고 독자와의 관계를 포착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애도와 그 애도를 통한 가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단편『레시터티브』에서 모리슨은 인종의 차이는 있지만 인종적 코드를 제거하여 독자가 인종간의 관계를 억압과 종속이 아닌 차이로 경험하도록 하면서 애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제시한다. 모리슨이 작품에서 역사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은 역사의 경험을 집단 내의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고 동시에 역사에 처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경의, 책임, 공감을 이끄는 것이다. 살아남지 못한 자에 대한 애도로 볼 수 있는 모리슨의 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다. 모리슨의 애도로서 글쓰기는 죽은 과거를 살리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현재에 변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

#### 주제어

상실, 우울, 애도, 유령, 인종, 공동체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은 애도의 글(work of mou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경험이 그의 소설의 많은 인물들의 고통과 문제의 시작이 된다. 그들은 죽은 자를 그리워하거나 상실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한다. 모리슨의 첫 작품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은 클로디아(Claudia)의 피콜라(Pecola)에 대한 애도가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동인이 된다. 클로디아는 아버지에게 강간당하고 어머니에게 학대 받고 미쳐버린 피콜라를 외면했던 죄책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을 포함한 이웃과 가족들이 피콜라를 돕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게 살아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985년 글로리아 네일러(Gloria Naylor)와의 대화에서 모리슨은 『빌러비드』(*Beloved*)를 쓰게 된 계기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인 노예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것이라고 밝힌다. 가너의 사건은 이 작품에서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딸을 죽인 세스(Sethe)와 유령으로 돌아온 딸 빌러비드의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 또 같은 인터뷰에서 죽은 사람들을 찍은 사진집(*The Harlem Book of the Dead*)에서 관에 누워 있는 열여덟 살 여자의 사진과 이야기를 접한 것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 (Taylor-Guthrie 207) 이는 『재즈』(*Jazz*)에서 도르카스(Dorcas)의 이야기가 된다. 『재즈』는 죽은 도르카스에 대한 바이올렛(Violet)과 조 트레이스(Joe Trace)의 집착과 그리움을 다루면서 이들에게 있었던 그 이전의 상실의 기억을 따라간다. 이들 작품뿐만 아니라 모리슨의 작품 전체에서 죽음과 상실은 주요한 주제이고 상실의 기억이 또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끌어 나가는 동인이다. 이 논문은 모리슨이 비평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밝힌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그 생각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모리슨의 글쓰기를 애도로 보고 애도로서의 글쓰기와 흑인 작가로서 모리슨이 공동체와 역사를 보는 태도와의 연결점을 짚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1917년 글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애도와 우울을 구별한다. 애도와 우울 모두 상실에 대한 반응이지만 애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상을 향했던 에너지가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감으로써 상실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울은 상실에 대한 슬픔이 지속되고 대상과 이고(ego)가 동일시되어 우울에 빠진 주체가 자기애를 상실하는 것이라

고 본다. 그러므로 우울에 빠진 주체가 자기 자신을 향해 표출하는 비난, 죄의식, 분노가 동시에 떠난 자에 대한 것이다. 상실의 대상을 향한 그리움, 슬픔, 또는 욕망의 지속 여부에 집중하여 애도와 우울을 구별하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모리슨과 같이 식민, 전쟁, 학살, 폭력, 억압의 경험과 그것을 겪은 집단의 기억의 문제를 작품에서 다루는 작가들에게 애도는 죽은 자, 잊혀진 자를 기억으로 살려내고 그 상실의 슬픔을 달래는 두 가지의 면을 포함한다. 집단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풀어 나가는 글쓰기에서는 개인의 상실의 경험과 역사에서 잊혀지고 배제된 자에 대한 기억이 연결된다. 노예제도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파리스 리뷰(*The Paris Review*)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역사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바꾸는 노력(103)이고 “국가적 기억상실증(national amnesia)”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잊혀지고 지워진 자에 대한 그리움은 정의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 『빌러비드』마지막에 말하는 “달래서 재울 수 없는 외로움 (Then there is a loneliness that roams. No rocking can hold it down)” (*Beloved* 274), 빌러비드라는 인물이 불러일으키는 외로움은 개인과 치유 여부의 면에 집중해서만 생각할 수 없다.

앤 쳉(Anne Anlin Cheng)은 프로이드의 우울(melancholia)의 개념이 주체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죄의식, 죄의식의 부인, 이 부인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식민주의(colonialism)와 미국의 인종주의에서의 지배 문화의 주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지배 문화가 인종적 타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우울의 메커니즘과 같다고 보고 지배문화가 인종적 타자에 대해서 가지는 공포와 욕망, 거부와 동일시 관계가 지배 문화의 우울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Dominant white identity in America operates melancholically. . . . Indeed melancholia offers a powerful critical tool precisely because it theoretically *account for* the guilt and the denial of the guilt, the blending of shame and omnipotence in the racist imaginary. . . . Like melancholia, racism is hardly ever a clear rejection of the other. While racism is mostly

thought of as a kind of violent rejection, racist institutions in fact often do not want fully expel the racial other; instead, they wish to maintain that other within existing structures. . . . the dominant culture's relation to the raced other displays an entangled network of repulsion and sympathy, fear and desire, repudiation and identification. . . . It is this imbricated but denied relationship that forms the basis of white racial melancholia. (12)

앤 책은 또한 엘리슨 (Ralph Ellison)의 『보이지 않은 사람』(*Invisible Man*)과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의 논의를 통해 지배 문화가 인종적 타자에게 보이는 우울증적 부인을 내재화한 흑인의 우울증적 반응을 지적한다. 『보이지 않은 사람』 첫 장면에서 백인과 부딪친 화자가 백인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푸른 눈』에서 백인 가게 주인이 피콜라를 보면서 하나의 존재로 인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 피콜라가 도달할 수 없는 백인의 아름다움의 표상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아 갈구하는 것에서 흑인이 우울의 대상이자 동시에 우울의 주체가 됨을 설명한다 (16-17). 앤 책의 논의는 인종주의, 식민의 경험을 한 사람들, 지배자, 인종적 타자 모두 상실의 주체이고 그들이 보이는 상실에 대한 우울증적 반응이 인종주의와 식민을 경험한 현대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모리슨은 폴 길로이(Paul Gilroy)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짚어 노예제, 인종주의의 역사가 곧 현대의 문제이자 병적인 모습을 가져 왔다고 말한다.

From a woman's point of view, black women had to deal with "post-modern" problems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earlier. . . . Certain kinds of dissolution, the loss of and the need to reconstruct certain kinds of stability. . . . Slavery broke the world in half, it broke it in every way. It broke Europe. It made them into something else, it made them slave masters, it made them crazy. You can't do that for hundreds of years and it not take a toll. They had to dehumanize, not just the slaves but themselves. They have had to reconstruct everything in order to make that system appear true. It made everything in World War II possible. It made World War I necessary. Racism is the word that we use to encompass

all this. The idea of scientific racism suggests some serious pathology.  
(178)

또한 모리슨은 이 인터뷰에서 인종적 타자로서 미국이라는 주체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것을 밝힌다.

My childhood efforts to join America were continually rebuffed. So I finally said, "you got it." America has always meant something other to me--them. I was not fully participant in it and I have found more to share with Third World peoples in the diaspora; maybe it's for political reasons.

본 논문은 모리슨이 앞에서 밝힌 미국이 인종적 타자에 대해서 보이는 우울증적 문제, 인종적 우울증적 주체와 대상으로서 흑인의 문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가 초래한 현대의 우울증적 문제를 짚으면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 대해 보이는 비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충실한 기억을 목표로 한다면 주체는 기억과 그리움을 거둬들일 수 없고 동시에 프로이트의 우울증적 상태로 상실의 대상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모리슨의 애도는 프로이트의 애도와는 다른 개념이며 그가 문학적 상상력과 글쓰기를 통해 기억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되살리는 애도의 가능성, 현재와 다른 미래의 가능성, 배제된 자를 기억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시사함을 밝히고자 한다. 데리다도 프로이트의 우울뿐만 아니라 애도가 타자의 죽음, 타자와의 완전한 단절을 상정함으로써 타자의 독립성, 타자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충실한 애도일 수 없다고 밝힌다 (*Specters* 120-21). 데리다가 말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정의를 중시하는 것("respect for justice concerning those who *are not there*, of those who are no longer or those who are not yet *present and living*") (*Specters* xiii)은 곧 지속적인 애도를 의미하고 책임감을 요구한다.

모리슨이 『빌러비드』에 쓰듯이 기억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애도로서 그의 글쓰기는 "메시아적이 아니면서 인종 공동체를 다시 그려낼 언어 (nonmessianic language to refigure the raced community)" ("Home" 11), "인

종의 구체성에 근거하면서 인종주의가 아닌(both free and situated, race-specific yet nonracist)” (“Home” 5) 언어를 개발하려는 그의 노력과 연결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모리슨이 흑인 작가라는 위치에서 보이는 비평적 통찰력이 백인 중심의 문학 전통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흑인이라는 인종적 위치를 넘어서는 비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종이 다른 독자가 모리슨을 읽을 때 정치적 연대감과 공감(empathy)을 형성하는 것이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모리슨이 흑인을 위해 글을 쓴다고 밝히지만 (Taylor-Guthrie 124) 그의 작품은 실제로 인종을 넘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인종주의에 물들지 않은 언어로 흑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그의 화두는 인종, 성, 계급, 국가,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과 갈등의 여파에 영향을 받으며 살면서 그 이름들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는 현대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문학 정전과 흑인 문학의 문제를 다룬 에세이(“Unspeakable Things Unspoken”)에서 모리슨은 흑인 문학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다원주의에 머물지 않으려면 흑인의 문화, 역사, 예술적 표현 방법에 기초한 문학 이론이 필요하고, 흑인의 존재가 미국 문학 정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주류, 소수 구별 없이 정전에 속하지 못한 작품과 현시대의 작품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미국 문학 정전에 대한 재조명, 그것과 흑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미국 문학 정전에 유령처럼 존재하는 흑인(“the ghost in the machine”), “말해지지 않은 말할 수 없는 것(unspeakable things unspoken)”(23)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리슨의 이러한 이해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문학의 주요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흑인성(blackness)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본 『어둠 속의 유희』(Playing in the Dark)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 모리슨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작가됨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 문학 정전에 상실된 타자로 존재하는 흑인성을 지적한다. 그는 미국 문학과 백인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흑인성(blackness)이 백인의 자유, 정체성, 권력, 도덕, 심리적 공포, 윤리의 문제를 작품에 형상화할 때 일종의 편리한 “비유의 지름길(metaphorical shortcut)”로 사용되며, 미국 문학의 주된 주제, 미국의 정체성, 미국인의 자유, 힘, 새로움 등은

자연, 야만으로 규정되는 흑인성을 배경으로 부각되어지고 구체화 된다고 한다 (“It was this Africanism, deployed as rawness and savagery, that provided the staging ground and arena for the elaboration of the quintessential American identity”) (44). 흑인, 흑인성은 백인이 정체성, 윤리성, 자율성을 성취 하는데 대조되고 극복되는 인물, 상징, 이미지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미국의 문학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은 고딕 로맨스는 미국 문학의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새로운 정착민이 문명의 부재, 경계의 부재, 통제되지 않은 자연, 실패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비유적으로 정복하려는 노력이며 미국 문학의 로맨스적 특징, 역사적, 도덕적, 형이상학적, 사회적 공포와 이분법을 형상화하는데 필요한 어둠의 이미지가 흑인에게 부여되었다고 지적한다(37). 앤 쉰은 흑인의 존재가 미국 문학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어둠 속의 존재로 가려져 있다는 모리슨의 주장에 프로이드의 상실에 대한 우울증적 반응, 즉 주체가 상실된 타자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적용해 모리슨이 미국 문학 정전을 “우울증적 집합체(a melancholic corpus)”(12)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백인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이러한 모리슨의 이해는 독자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17) 이 이해에 근거하여 윌라 캐서(Willa Cather), 애드가 알란 포우(Edgar Allan Poe), 마크 트웨인(Mark Twain) 작품에서 흑인이 백인 주인공의 욕망과 좌절, 공포가 투사되는 대체물(surrogate)로 형상화되는 예를 든다.

모리슨의 문학 비평가로서의 시각은 문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교수로, 편집자로서의 경험과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써낸 작가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로서 다른 작가의 작품에 접근하는 모리슨은 각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심연의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었으며 어느 정도로 언어와 씨름하여 그것을 작품에 담아냈는가에 집중한다.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포크너에게 감동한 이유가 포크너의 작품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자신의 욕구를 채워 주었고 포크너의 작품이 역사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다루어 제시해 준 점이라고 한다 (“Faulkner and Women” 296). 『어둠 속의 유희』에서 작가로서 미국 문학에 가한 비평은 결국 모리슨이 미국 흑인 작가로서 미국 문학이라는 집합체의 무의식과 의식을 인종의 면에서 살펴 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문학에 반응하고 미국 문학을 창조하는 자신의 글쓰기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다. 『어둠 속의 유희』에서 모리슨은 인종주의를 지속시키는 사람들에게 인종주의가 가져다 준 심리적 영향,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흑인을 어둠, 그림자, 대체물, 배경으로 만드는 작가의 상상력에 대해 작가로서 자신의 일은 흑인을 인종적 객체로 형상화하는 시선을 인종적 주체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My project is an effort to avert the critical gaze from the racial object to the racial subject; from the described and imagined to the describers and imaginers; from the serving to the served. (90)

이는 백인 작가에게 우울증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흑인을 주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 모리슨의 방법 중 하나가 백인의 공포와 욕망이 투사된 어둠의 존재로서 흑인이 아닌 과거에 억압된 주체의 유령을 작품에 그려낸 것이다. 모리슨은 기억에서 지워지고 그 존재가 기록되지 않은 (“disremembered and unaccounted for”) (*Beloved* 274) 인물을 『빌러비드』에서 유령으로 불러낸다. 모리슨은 기록된 흑인 문학의 기원을 노예서사(Slave Narratives)로 보면서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는 노예서사가 자신의 문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문학 전통이라고 밝힌다 (“The Site of Memory” 104). 하지만 노예서사가 작가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노예서사를 쓴 조상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기억을 중시하여 글을 쓴다고 한다 (“The Site” 111). 그러므로 모리슨의 글에서 기억은 작품의 내용으로, 글을 이어나가는 기제로 중요하다. 『가장 푸른 눈』에서 피콜라의 침묵 그리고 클로디아의 죄책감, 『술라』에서 술라의 죽음 그리고 술라에 대한 넬의 그리움,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에서 솔로몬의 비행 그리고 파일럿(Pilate)의 노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모리슨의 끝날 수 없는 애도의 표현이고 기억이라는 행위를 통해 과거를 움직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령 빌러비드를 불러내는 것은 작품에서 쓰듯이 지워진 발자국 (*Beloved* 275)을 그려내는 것이고 『어둠 속의 유희』에서 말하는 미국이라는 주체에 그림자로 존재한 흑인을 유령화한 것이다. 모리슨은 『빌러비드』를 통해 육체와 정신, 주체와 대상,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인종의 렌즈를 통해 보여져 무너질 때 역사 서술의 계시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고 말한다.

In *Beloved* I wanted to explore the revelatory possibilities of historical narration when the body-mind, subject-object, past-present oppositions, viewed through the lens of race, collapse. ("Home" 9)

빌러비드는 죽은 아이가 유령으로 돌아 온 것, 노예제도에서 죽은 자들이 유령으로 돌아 온 것, 과거가 현재에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를 투쟁의 결과로 봤을 때 과거를 되살리는 것은 억압된 자, 패자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데리다가 말하듯이 유령은 과거의 위협이고 도래할 가능성이기에 근본적으로 미래이다 (*Specters* 48). 유령을 통해서 과거는 현재를 위협할 수 있고 그러므로 미래와 연결된다.

모리슨은 네일러와의 대화에서 『가장 푸른 눈』으로 시작한 자신의 글쓰기는 자기 안에 죽은 여자 아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 그 죽은 여자아이를 살아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I used to live in this world. . . . I used to really belong here. And at some point I didn't belong here anymore. I was somebody's parent, somebody's this, somebody's that, but there was no me in this world. And I was looking for that dead girl and I thought I might talk about that dead girl, if for no other reason than to have it, somewhere in the world, in a drawer. There was such a person. I had written this little story earlier just for some friends, so I took it out and began to work it up. And all of those people were me. I was Pecola, Claudia. . . . I was everybody. And as I began to do it, I began to pick up scraps of things that I had seen or felt, or didn't see or feel, but imagined. . . . But the dead girl--and not only was that girl dead in my mind, I thought she was dead in everybody's mind , , , (Taylor-Guthrie 198)

같은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으로 시작한 이 일이 1985년 당시 『빌

러비드』를 쓰고 있는 시점에 많이 진전되어 그 여자아이는 이제 자기 곁에서 뛰어다닐 정도라고 말한다.

About the "dead girl." That bit by bit I had been rescuing her from the grave of time and inattention. Her fingernails maybe in the first book; face and legs, perhaps, the second time. Little by little bringing her back into living life. So that now she comes running when called—walks freely around the house, sits down in a chair; looks at me, listens to Gloria Naylor and anybody else she wants to. . . . She is here now, alive. I have seen, named claimed her--and oh what company she keeps. (Taylor-Guthrie 217)

글쓰기가 자기 안에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과정이고 자신의 작품의 인물들이 자신이기도 한다는 모리슨의 말은 애도하는 자와 애도 받는 자, 주체와 상실된 타자의 구별을 허무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병적이라고 규정한 애도의 대상과 주체의 동일시는 모리슨에게 이미 주체의 상태이다. 빌러비드는 모리슨에게 애도의 대상이자 자신의 일부이다. 이렇듯 모리슨은 역사에서 잊혀진 죽음과 자기 안의 상실을 연결하는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현재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빌러비드』 마지막에 이것은 전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쓰고 있지만 그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눈으로 빌러비드를 보게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기억하고 현재와 다른 미래를 모색하는 자신의 노력에 동참하게 한다.

흑인 문화와 소설의 연결점을 짚는 논의에서 모리슨은 현대의 소설은 흑인들에게 옛날 어른들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다 (“Rootedness” 340). 자신의 소설을 흑인의 구술 문학과 연결시키면서 모리슨은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글을 쓰고자 한다. 모리슨의 이러한 입장은 언어를 행위로 보고 작가와 독자의 관계 안에서 언어가 생명력을 가진다는 그의 생각과 관련성이 있다. 1993년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그는 장님 여인과 손안의 새의 비유로 언어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님이요 현명한 여인에게 도시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새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대답해 보라고 다그친다. 여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자신이 아는 것은

그것이 그들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모리슨은 이 비유에서 여인은 작가이고 손 안의 새는 언어라고 하고 방문한 이들의 의도와 여인의 대답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여러 번 이야기(version)를 바꾼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여인을 놀리러 왔다면,” “젊은이들의 손에 새가 없다면,” “여인이 한 말이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 언어의 미래는 온전히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라면,” “여인이 언어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언어의 힘, 행복은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이라는 가정에 따라 여러 개의 가능성으로 펼쳐진다. 모리슨은 젊은이들이 여인에게 그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상상한다. 젊은이들은 여인이 손을 뺐어 만져 보려 하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도 없고, 현명하다면서 자신들이 정말 묻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진지한 시도 없이 교묘한 대답만 했다고 비난한다. 젊은이들은 여인에게 자신들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여인의 세상을 얘기해 달라고 요구한다. 장님인 것과 노예의 후손인 것과 여인인 것과 그들과 다른 시대를 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젊은이들의 불만 섞인 요구에 여인은 입을 열어 이제 자신은 그들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이 언어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비유에서 보듯이 모리슨에게 언어는 여인과 젊은이들의 관계에 의해 존재 여부, 생명력이 결정된다. 그는 작가의 글, 언어의 생명은 그 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독자의 요구에 달려있다고 본다. 『빌러비드』마지막에 빌러비드의 발자국도 물도 그의 숨도 없어지고 그저 바람과 날씨만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빌러비드가 다시 망각, 무로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노벨상 연설에서 모리슨의 말대로 언어는 삶을 그대로 포착할 수 없고 노예제, 전쟁, 학살을 그대로 담아 낼 수 없다. 그러나 애도에 대한 경의와 책임을 나눈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서 빌러비드는 의미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 모리슨이 독자에게 기대하고 독자와 나누는 관계는 포착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애도와 그 애도를 통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데리다는 가능성, 불확실성이 새로운 형태의 관계, “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불가능이 유일하게 새로운 것의 가능성일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 공간, 또는 다른 종류의 근접성을 초월한 상상력(teliopoesis)에 근거한 관계가 새로운 정치적 관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본다(*The Politics of Friendship* 29-37). 하지만 데리다가 미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는 가능성을 모리슨은 흑인 구술 문화의 화자, 청자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생명력에서 찾는다. 모리슨의 연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대화, 관계, 상황으로 전개된 손 안의 새와 방문객의 이야기는 흑인 구술 문화가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가능성, 변화성을 보여 주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구술 문화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의 비유가 된다. 모리슨은 이것을 또한 자신이 독자와 가질 수 있는 관계와 자신의 글의 생명력에 대한 비유로 제시한다. 모리슨에게 “언어의 생명력은 화자, 독자, 작가의 실제의, 상상의, 가능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The vitality of language lies in its ability to limn the actual, imagined and possible lives of its speakers, readers, writers)” (*Nobel Lecture*). 그리고 모리슨은 이 생명력이 궁극적으로 독자의 작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벨상 연설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여인과 젊은이들의 관계는 흑인의 경험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작가와 인종, 성, 계급, 국적, 또는 문화가 다른 독자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모리슨은 흑인임을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자신과 독자의 관계에서 본다. 여인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의 표현이다, 데리다의 “우정,”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한 정치적 관계가 모리슨에게는 자신과 독자가 자신의 글로 만들어 내는 관계이다.

여성 작가의 입장에서 여성과 소설(women and fiction)의 관계를 살펴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1929)에서 울프가 과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누이, 현재의 여성 작가인 자신, 백 년 후의 여성 작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리슨의 『빌러비드』와 노벨 문학상 연설과 유사점을 보인다. 여성과 소설이라는 논의의 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는 울프는 우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여성과 소설, 문학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성 문학 전통이 빈약하고, 작품에서 여성과 여

성의 경험의 주로 남성의 의식과 욕망을 통해 재현되고, 여성들이 작가로의 꿈과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밝힌다. 그는 여성 작가의 입장에서 모리슨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면서 이 글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억압되었던 이야기, 존재를 형상화한다. 울프는 논의를 위해 자신일 수도 있고 어느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상상의 여성 소설가를 불러 온다(5).

울프는 이 상상의 작가가 봄베이에서 말을 타다 말에서 떨어져 사망한 속도가 남긴 유산 덕분에 돈을 벌기위해 노력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해야만 했다면 느꼈을 공포, 미움, 쓰라림 없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자유를 100년 후 여성이 더 이상 남자에게 보호받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때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제시하면서 여성이 그러한 자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Anything may happen when womanhood has ceased to be a protected occupation” (*A Room* 40)). 울프는 속도의 유산 덕에 얻은 현재의 경제적 자유를 통해 100년 후의 여성의 경제적 자유를 상상한다. 이는 곧 엘리자베스 시대의 중산층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유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자유가 없음으로 인해 억압된 여성 작가의 존재, 여성의 문학 창작력을 울프의 글에 유령처럼 불러 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울프는 이 가능성으로서 유령을 통해 시, 공을 초월한 여성 작가들의 연결성, 현재의 여성 작가가 셰익스피어의 누이가 될 수 있었고 미래의 여성 작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 여성 작가에게 주어진 연 500파운드의 자유는 돈과 계급이 결정하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아닌 시, 공, 계급을 초월하여 여성들을 연결하는 가능성의 고리로 볼 수 있다.

스피박(Gayatri Spivak)은 울프의 이런 노력을 데리다의 텔리오포이에시스(teliopoesis)를 빌어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울프가 제시하는 여성의 집합성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예측 가능한 일반성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장은 없지만 도래할 가능성으로서의 집합성이라고 한다 (31-34). 스피박은 『자기만의 방』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여성을 위해 일한다면 여성작가가 나올 것이며, 빈곤과 무명 속에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she would come if we worked for her, and then so to work, even in poverty and obscurity, is worth while)”(*A Room* 114)에 주목하여 울프가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자기만의 방과

연 5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글은 자기만의 방과 500파운드가 없어도 같이 노력한다면 여성 작가의 존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본다(35).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의 논지가 연 500 파운드가 자저다 주는 자유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무명 속에서도 여성들이 여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스피박은 울프가 미래의 여성 엘리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집합성을 제시한다는 것(“It is important that Woolf offers this to the female elite in the making—Oxbridge women—as an imaginative alternative”) (*Death of a Discipline* 50)에 주목하여 테리다가 말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억압된 과거의 가능성이 불러올 공동체를 울프가 1929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의 연대로 상상했다고 본다. 그러나 스피박이 지적한 대로 현재 제3세계의 여성과 다른 세계의 여성간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는 여성을 하나의 일반적인 범주로 볼 수 없게 한다. 그는 집합성의 예로 여성을 든 것은 여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성도 모든 이름의 집단이 당면한 불균형의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로 들었다고 하면서(70) 울프의 마지막 문장에서 “일한다면”이라는 조건에 주목하여 제3세계 여성과 다른 세계 여성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권력, 경제력, 인식의 차이를 현재가 당면한 “일”로 본다.

모리슨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울프와 포크너 작품의 소외 문제를 다루면서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다루지 않았지만 또한 각자의 “일한다면”에 대한 통찰이 같지는 않지만 『자기만의 방』의 울프와 모리슨의 공통점은 현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시킨 점이다. 노벨상 연설에서 모리슨이 상상한 눈먼 여인과 찾아 온 젊은이들의 관계가 울프에게는 자신일 수 있는 당시의 여성 작가와 자신의 강의를 듣는 청자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모리슨의 연설과 울프의 강의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면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상상력도 주요하다. 울프 강의의 마지막 문장의 “일한다면”이라는 조건은 죽은 자와 억압된 과거에 대한 애도와 역사에 대한 책임은 역사의 한 시점의 구체성에 직면한 개인의 선택, 행위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은 선택과 행위도 요구하는 것이고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정체되어 있을 수 없다. 모리슨이 현재 흑인 여성 작가로

서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메시아적이 아니면서 인종 공동체를 다시 그려낼 언어”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모리슨은 『어둠 속의 유희』에서 인종의 위계질서, 문화적 헤게모니, 타자화 (“hidden signs of racial superiority, cultural hegemony, and dismissive “othering” of people”)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와 씨름하며 인종의 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글을 쓰는 노력이 현재 흑인 작가로서 자신의 일이라고 한다. 『어둠 속의 유희』가 발표되고 5년이 지난 1997년 글에서 모리슨은 인종주의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격리된 보호구역이나 메시아의 도래와 같은 미래의 조건으로만 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 (“the race-free world has been posited as ideal, millennial, a condition possible only if accompanied by the Messiah or situated in a protected preserve--a wilderness park”) (“Home” 3). 현재의 인종주의를 구축한 구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그 일이 흑인 여성 작가라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볼 때 다급하고, 해야만 하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현재의 그의 일이 된다.

But, for the purpose of this talk and because of certain projects I am engaged in, I prefer to think of a-world-in-which-race-does-not-matter as something other than a theme park, or a failed and always failing dream, or as the father's house of many rooms. I am thinking of it as home. "Home" seems a suitable term because, first, it lets me make a radical distinction between the metaphor of house and the metaphor of home and helps me clarify my thoughts on racial construction. Second, the term domesticates the racial project, moves the job of unmaterring race away from pathetic yearning and futile desire, away from an impossible future or an irretrievable and probably nonexistent Eden to a manageable, doable, modern human activity. Third, because eliminating the potency of racist constructs in language is the work I can do. I can't wait for the ultimate liberation theory to imagine its practice and do its work. Also matters of race and matters of home are priorities in my work and both have in one way or another initiated my search for that elusive

sovereignty as well as my abandonment of the search once I recognized its disguise. (“Home” 3-4)

모리슨은 『어둠 속의 유희』에서 자신의 글에서 인종의 코드를 제거한 예를 그의 단편『레시타티브』(“Recitatif”)로 든다. 이 작품에서 두 주인공의 관계에 인종 정체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모리슨은 의도적으로 두 인물의 인종을 알 수 없게 한다. 로버타(Roberta)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트윌라(Twyla)는 춤만 추는 철없는 젊은 엄마 때문에 임시 보호소에 오게 되어 친구가 되고 보호소에 나와 어른이 되고 자신들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까지 몇 차례 우연히 만나게 된다. 보호소에서 같이 기거하게 된 두 사람이 “소금과 후추(salt and pepper)”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누가 흑인인지 누가 백인인지는 명시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 보호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던 청각 장애인 메기(Maggie)에 대한 기억이 달라 논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메기를 흑인으로 기억하고 또 한 사람은 메기를 백인으로 기억한다. 또 서로 상대방이 메기를 때렸다고 비난한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독자는 두 소녀가 메기를 괴롭혔으며 또한 그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소녀가 메기를 괴롭힌 것과 보호소에 자신을 보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연결성이 있어 보인다. 듣지 못하는 메기와 어린 딸의 고통과 보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병든 엄마와 철없는 엄마를 동일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에 근거해 메기를 흑인으로 본 사람이 흑인이고 메기를 백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백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지만 모리슨은 끝까지 각자의 인종을 밝히지 않는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반복되는 만남에서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과 계급이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도 계속된다. 모리슨은 이 두 사람의 인종 차이가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지만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공감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종, 문화, 계급의 차이는 명백하고 구체적이다. 만나면 보호소 얘기, 어머니에 대한 기억, 메기에 대한 기억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서 대화를 길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동시에 보호소에 “버려

진(dumped)” 경험과 그 느낌, 분노, 외로움을 감당하고 성장하는 경험의 공통점도 인식한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중간에 대사를 노래하듯 말하듯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목 “레시터티브(Recitatif)”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성장과 생활에 간주처럼 끼어드는 우연하고 반복적인 만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과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친근감과 거리감의 중첩과 반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 자체가 흑인 문화에 구전되어 오는 노래처럼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주인공의 인종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로버타를 흑인으로, 트윌라를 흑인으로 읽으면서 독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경험한다. 모린 오하라(Maureen O'Hara)는 국가, 인종, 종교, 성, 계급 등의 경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한다.

As our world undergoes what some consider to be the birth pangs of its first truly "global civilization," in which national, ethnic, religious, gender, and class boundaries are shifting on unprecedented scales, all of us will need new postmodern psychologies with which to navigate.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 individuals and other groups may become the most important interpersonal and even political competence. (“Relational Empathy” 295)

『레시터티브』의 로버타와 트윌라의 관계는 문학 상상력을 통한 주체와 타자 관계의 억압, 종속의 표상을 없애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을 읽을 때 미국 문화의 인종 코드를 각 인물에게 적용하여 각자의 인종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항상 헛수고가 된다. 누가 흑인이고 누가 백인인가를 찾는 작업은 두 사람을 흑인으로도 백인으로 읽어 보게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인종은 차이로 존재할 수 있다. 모리슨은 자신의 언어와 글의 생명력을 독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 작품을 통해 독자가 인종간의 관계를 억압과 종속이 아닌 차이로 경험하도록 하면서 인종의 차이를 인식하며 애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독자의 관계를 만든다.

파리스 리뷰의 인터뷰에서 밝히듯이 『빌러비드』를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은 노예제도를 “느끼게”(103)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역사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은 역사의 경험을 집단 내의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고 동시에 역사에 처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경의, 책임, 공감을 이끄는 것이다. 살아 남지 못한 자에 대한 애도로 볼 수 있는 모리슨의 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다. 육체와 정신, 과거와 현재, 주체와 대상, 백인과 흑인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모리슨의 애도는 또한 현재와 미래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의 현재성에 충실한 글쓰기이다. 모리슨의 애도로서 글쓰기는 죽은 과거를 살리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현재에 변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 ❖ Works Cited

- Cheng, Anne Anlin. *The Melancholy of Race: Psychoanalysis, Assimilation, and Hidden Grief*. NY: Oxford UP, 2001.
- Derrida, Jacques.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the Work of Mourning and the New International*. Tr. Peggy Kamuf. NY: Routledge, 1994.
- \_\_\_\_\_. *The Politics of Friendship*. Tr. George Collins. NY: Verso, 1994.
-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A General Selection from the Works of Sigmund Freud*. Ed. Joyn Richman. London: Hogarth, 1937. 142-61.
- Gilroy, Paul. "Living Memory: A Meeting with Toni Morrison." *Small Acts: Thoughts on the Politics of Black Cultures*. NY: Serpent's Tail, 1993. 175-82.
- Morrison, Toni. "The Art of Fiction CXXXIV." An Interview. *The Paris Review* 128 (1993): 83-125.
- \_\_\_\_\_. *Beloved*. NY: Plume, 1987.
- \_\_\_\_\_. "Faulkner and Women." *Faulkner and Women: Faulkner and*

- Yoknapatwapha*, 1985. Ed. Doreen Fowler and Anne Jay Abad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6. 395-407.
- \_\_\_\_\_, "Home." *The House that Race Built*. Ed. W. Lubiano. NY: Radom House, 1997. 3-12.
- \_\_\_\_\_, *Lecture and Speech of Acceptance, upon the Award of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Delivered in Stockholm on the Seventh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Ninety-Three*. NY: Knopf, 1994.
- \_\_\_\_\_, *Playing in the Dark*. 1992. NY: Vintage, 1993.
- \_\_\_\_\_, "Recitatif." *Confirmation: A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Women*. Ed. Amiri Baraka and Amina Baraka. NY: Quill, 1983. 243-61.
- \_\_\_\_\_, "Rootedness: The Ancestor as Foundation." *Black Women Writers, 1950-1980: A Critical Evaluation*. Ed. Mari Evans. NY: Doubleday, 1984. 339-45.
- \_\_\_\_\_, "The Site of Memory." *Inventing the Truth: The Art and Craft of Memoir*. Ed. William Zinsser.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101-24.
- \_\_\_\_\_, "Unspeakable Things Unspoken: The African-American Presence in American Literature." The Tanner Lecture on Human Values, University of Michigan, 7 October 1988. *Criticism and the Color Line: Desegregating American Literary Studies*. Ed. Henry B. Wonham. New Brunswick, NJ: Rutgers UP, 1996. 16-29.
- O'Hara, Maureen. "Relational Empathy: Beyond Modernist Egocentrism to Postmodern Holistic Contextualism." *Empathy Reconsidered*. Ed. Arthur C. Bohart and Leslie S. Greenberg. Washington, D. C.: APA, 1997. 295-319.
- Spivak, Gayatri C. *Death of a Discipline*. NY: Columbia UP, 2003.
- Taylor-Guthrie. Ed.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1929.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1.

## ❖ ABSTRACT

The Politics of Memory and Writing: Toni Morrison's *Playing in the Dark*, *Beloved*, *Nobel Lecture*, and "Recitatif."

Miehyeon Kim

Toni Morrison's novels are involved in a work of mourning. Death or loss is prevalent in the world of Morrison's characters, and mourning becomes a driving force or a thematic point of the narratives. The works which try to remember the victims of injustice in slavery, war, or genocide and tell the story of the oppressed past are caught between two commitments: summoning the dead for justice and coming to terms with the loss. As we see in *Beloved*, mourning is an act of bringing the past into life and Morrison's mourning refuses to attain a sense of closure, which, for Freud, is a sign of healthy mourning. In this sense, Morrison's work of mourning does not follow Freud's distinction between mourning and melancholia. Derrida's concept of specter, which is a threat of the oppressed past and, at the same time, the promise for a just future, is relevant to Morrison's work of mourning. In *Playing in the Dark* Morrison examines the African American presence as surrogates or shadows for the white characters' search for self and freedom and their drama of repression in the works of white American writers. From this understanding of the critical examination, Morrison sees her job as a black writer as turing the racial other into the racial subject. Resurrecting the dead in *Beloved* can be part of the project, and it is an investigation for a different future. In this effort to bring the past back into life as a promise for a different future, Morrison also opens room for her readers to participate in her mourning and working for the future. Different from Derrida, who sees the impossible as the only possible

chance of something new, Morrison focuses on doable activities in the present to work for a different future. For Morrison, her literary imagination and writing is what makes a change, and she sees that her job as a black writer is also to develop language which helps her to be both free and situated in this racialized world and to refigure the raced community. Removing all the racial codes in her short story, "Recitatif," she shows the possibility of a world not without racial differences but without racial hierarchy. She thinks that for her text and language to live and flourish it must enter into human relationships. With her readers who share her mourning in her work, Morrison works for a different future and a different community.

---

**Key Words**

Loss, Mourning, Melancholia, Specter, Ghost, Race, Community

논문접수일: 2008. 4. 19.

심사완료일: 2008. 5. 21.

게재확정일: 2008. 6. 13.